

2023  
고2 연애  
지학사

##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2(2)(1) 단어의 품사와 특성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출제 유형 베스트

1. 개별 품사의 특성이나 하위 분류에 대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명사: 보통 명사 / 고유 명사, 자립 명사 / 의존 명사
- 대명사: 지시 대명사 / 인칭 대명사
- 동사: 자동사 / 타동사, 능동사 / 피동사, 주동사 / 사동사
- 부사: 성분 부사 / 문장 부사
- 조사: 격 조사 / 접속 조사 / 보조사

2. 품사 통용의 사례를 제시하고 단어의 품사를 파악하는 내용이 출제됩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동사와 형용사: 의미, 활용 양상(현재 시제 평서형, 명령형, 청유형, 목적의 어미 '-러'나 의도의 어미 '-려')에 따라 구분
- ② 조사와 의존 명사: 조사는 체언과 결합하여 쓰이는 반면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 ③ 수사와 수 관형사: 수사는 체언에 속하므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쓰이는 반면 수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함.

3. 어미의 역할과 활용 양상에 대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용언	어간	-	
	어미	어말 어미	종결 어미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연결 어미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선어말 어미	전성 어미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시제, 높임 등

#### [용언의 활용 종류]

- 규칙 활용: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인 경우.
- 불규칙 활용: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의 형태 변화가 불규칙한 경우.

### 지문 분석

성질이 공통된 단어들끼리 모아 갈래를 지은 것(품사의 개념)을 품사(品詞)라고 한다.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품사의 분류 기준. 품사의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사례를 나누거나 특정 품사가 속하는 단어가 가지는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의 세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첫째, 단어는 **형태 기준**(품사 분류 기준 ① - 불변어, 가변어)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와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로 분류된다. [ '손, 우리, 배우' 등의 단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명사, 대명사, 부사 등은 형태를 바꾸지 않음.) 불변어에 속하고, '먹-, 예쁘-' 등은 '먹고/먹으니/먹으면, 예쁘고/예뻐서/예쁜'과 같이 형태가 변하므로(용언은 활용에 따라 형태가 변함.) 가변어에 속한다. ]([ ]: 형태 기준에 따른 품사 분류의 예시. '품사를 '형태'로 구분할 때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 다른 격 조사는 '불변어'에 속해.'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형태 기준에 따른 품사 분류

둘째, 단어는 **기능 기준**(품사 분류 기준 ② -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에 따라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이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동사, 형용사),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수식언**(관형사, 부사), 여러 성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관계언**(조사),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감탄사)으로 나뉜다.

▶ 기능 기준에 따른 품사 분류

셋째, 단어는 **의미 기준**(품사 분류 기준 ③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에 따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끼리 분류된다. [ 의미 기준에 따라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관형사, 다른 부사 등을 수식하는 부사, 주로 체언에 붙어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말하는 사람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나뉜다. ]([ ]: 의미 기준에 따라 총 9품사의 체계로 분류함.)

▶ 의미 기준에 따른 품사 분류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어(조사가 포함되는 점에 주의해야 함.)	불변어 (형태가 바뀌지 않음. 서술격 조사는 포함되지 않음.)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서술격 조사는 관계언에 속하지만 다른 조사와는 달리 형태가 변한다는 점에서 가변어에 속함.)	
	가변어 (형태가 바뀜.)	용언	동사 형용사

▶ 형태, 기능, 의미에 따른 품사의 분류

1]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다가서기]

다음 글에 쓰인 단어 가운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찾아 써 보자.

안녕, 건우야. 여기에 쪽지를 남긴 이유는 나와 자리를 바꿔 줄 수 있을지 물어보려고. 너와 나는 둘 다 앉은키가 비슷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너의 생각도 말해 줘.

- 대상의 이름으로 쓰이는 단어(명사): 건우, 쪽지, 이유, 자리, 수, 앉은키, 것, 생각
-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대명사): 여기, 나, 너
-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수사): 둘

문장에서 주로 주어가 되는 자리에 오며, 때로는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자리에도 오는 부류의 단어(체언의 개념)들을 체언(體言)이라고 한다. 이들은 [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태의 변화가 없다.(불변어

에 속함.) ]([ ]: 체언의 특징) 체언에는 **명사(名詞)**, **대명사(代名詞)**, **수사(數詞)**(체언의 종류)의 세 가지가 있다. 명사는 체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부류로서,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명사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른 체언과 구별된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이는 체언**(대명사의 개념)이고,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킬 때 쓰이는 체언**(수사의 개념)이다.

▶ 체언의 개념과 종류

체언의 일반적 특징

- 조사와 결합한다.
-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 복수형을 취할 수 있다.(명사, 대명사)

### ① 명사

[다가서기]

다음 문장에 쓰인 단어 가운데 **꾸미는 말이 있어야만 쓰이는 명사**(의존 명사)를 찾아보자.

그는 밀가루로 된 것이면 뭐든지 좋아한다.

'것'(의존 명사 '것'은 명사이므로 자립 형태소이지만, 그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 명사 중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보편적으로 적용됨.) 이름을 보통 명사라고 하고,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단일한 대상에 적용됨.) 이름을 고유 명사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인명, 지역명, 상호 등이 고유 명사에 속한다. ]([ ]: 명사의 세부 분류 ①)

- “**순이**(고유 명사)야, **방**(보통 명사)에 들어가서 **오빠**(보통 명사) 좀 깨워라.”

[ 또한 혼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자립 명사라고 하고, 반드시 그 앞에 꾸미는 말, 즉 **관형어**(관형사 / 체언 + 관형격 조사 / 용언의 관형사형 / 용언의 명사형 + 관형격 조사)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의존 명사**(의존 명사는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지만 관형어의 수식이 가능하고,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립 형태소인 명사로 분류함.)라고 한다. ]([ ]: 명사의 세부 분류 ②, **동일한 형태의 단어를 제시하고 품사를 묻는 문제에서 '만큼', '대로'와 같이 형태가 같은 의존 명사와 조사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 “저기 보이는 **것**(의존 명사)이 **바다**(자립 명사)입니까?”

▶ 명사의 종류와 각각의 개념

### ② 대명사

[다가서기]

다음 글에서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모두 찾아보자.

나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다. 다만 **내**(‘나’에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가 붙을 때의 형태)가 지금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는 제각기 자기 특유의 창을 통해 인생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본 것은 사이즈를 통해서 온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경우였다.

- 앨프리드 가드너, 「모자 철학」에서

나, 내, 그것, 우리, 자기

다음 문장에서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괄호에 들어갈 공통된 말을 써넣어 보자.

철수는 ( )이/가 가겠다고 했다. 그는 뭐든지 ( ) 고집대로 해야 한다.

제, 자기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체언(대명사의 개념)이다. [ 대명사에는 지시 대명사와 인칭 대명사(대명사의 종류)가 있다. 지시 대명사에는 ‘이것, 그것, 저것’ 등과 같이 사물을 가리키는 것(사물 대명사)과 ‘여기, 거기, 저기’ 등과 같이 장소를 가리키는 것(처소 대명사)이 있으며, 인칭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 등으로 나뉜다. ]([ ]: 대명사의 하위 분류)

지시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사물 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처소 대명사)	
인칭 대명사	1인칭	나, 저, 우리, 저희, 소인(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1인칭 대명사), 짐(임금이 자기를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
	2인칭	너, 자네, 그대, 당신, 너희, 여러분
	3인칭	그(‘이’나 ‘저’와 달리 명사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음), 이분, 저분, 그분, 이이, 그이, 저이

[대명사 ‘당신(當身)’의 다의적 의미]

- ①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 ‘하오’할 자리에 쓴다. 예) 당신은 누구시오?
- ②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 예) 당신, 요즘 직장에서 피곤하시죠?
- ③ 맞서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 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 ④ 3인칭 재귀칭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 예)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 대명사의 개념과 종류

대명사에는 모르는 사물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미지칭(未知稱)(가리킴을 받는 지시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 예) 누구, 어디),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부정칭(不定稱)(특정한 지시 대상이 아닐 때 예) 아무개, 아무것, 아무데), 앞에 한 번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재귀칭(再歸稱)(선행 명사구가 3인칭이어야 하고 유정 명사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 등이 있다. [ ‘무엇, 누구, 어디’와 같은 대명사는 주로 의문문에서 미지칭으로 쓰이고, ‘무엇이든, 누구든, 어디든’에서와 같이 부정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 ]: 미지칭이 ‘(이)나’나 ‘도’와 같은 보조사가 결합하여 부정칭으로 쓰이거나 강세 내지 억양의 차이로 구별되기도 함. → 부정칭과 미지칭은 특정 대상의 지시 여부에 따라 구분됨. 대명사가 사용된 문장을 제시하고, 대명사를 다시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재귀 대명사라고도 하는 재귀칭에는 ‘저, 자기, 당신’ 등이 있는데, 주로 3인칭 주어로 쓰인 명사나 명사구를 다시 가리키는 데에 쓰인다.(재귀 대명사의 쓰임)

▶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의 개념과 특성

- ③ 수사(국어의 수사는 일반적으로 고유어 계열과 한자어 계열로 구분됨.)

[다가서기]

다음 짝지어진 문장의 뜻이 비슷하도록 괄호에 적절한 고유어나 한자어를 써 보자.

- 하나에 셋을 더하면 넷이다. → 고유어계 양수사  
 ≍ (일)에 (삼)을/를 더하면 (사)(이)다. → 한자어계 양수사
- 우리의 이념은 (첫째)은/는 진리이고 (둘째)은/는 정의이다. → 고유어계 서수사  
 ≍ 우리의 이념은 제일(第一)은 진리이고 제이(第二)는 정의이다. → 한자어계 서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수사의 개념)들을 수사라고 한다. [ 수사에는 수량을 나타내는(양수사

의 개념) 양수사(量數詞)와 **순서를 나타내는**(서수사의 개념) 서수사(序數詞)가 있다. ‘**하나, 둘, 셋**’(고유어계. 고유어계 양수사는 ‘아흔아홉’까지만 존재하며 백하나 이상은 ‘한자어+고유어’나 한자어만으로 사용됨.) **일, 이, 삼**(한자어계)’ 등은 양수사이고, ‘**첫째, 둘째, 셋째**’(고유어계 - ‘-째’를 붙임.) **제일, 제이, 제삼**(한자어계 - ‘제’를 붙임.)’ 등은 서수사이다. ]([ ]: 수사의 하위 분류.)

[수사의 특성]

- 대명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관형사의 꾸밈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비교하여, 수사는 특이한 환경에서 관형사 ‘이, 그, 저’의 꾸밈을 받는 경우가 있다. ㉠ 저 **둘**이 한편이야.
-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을 수 있다. ㉡ 제일(第一), 둘째
- 조사가 붙지 않으면 부사의 성격을 띠게 된다. ㉢ 나는 사과를 **하나** 먹었다.

▶ 수사의 개념과 종류

[확인하기]

다음 글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찾아 써 보자.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놀러 간 민수는 친구 셋과 함께 트램펄린을 타고 놀았다. 그의 마음은 가벼운 구름과 같을 따름이었다.

- 고유 명사: **민수**                      • 대명사: **그**
- 의존 명사: **따름**                    • 수사: **셋**

② 용언: 동사, 형용사

[다가서기]

다음 글에서 서술어로 사용된 단어를 찾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로 구분해 보자.

발끝에 **차이는**(동사) 자갈, 길가에 **아무렇게나**(형용사) **자란**(동사) 코스모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신선하게**(형용사) 그의 마음을 **끌었다**(동사)

<조건>

-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일 것.
- 현재 시제에서 ‘-는다’ 또는 ‘-는다’가 연결되는 단어일 것. 예 가-는다, 먹-는다
-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가능한 단어일 것. 예 가-라 / 가-자, 먹-어라 / 먹-자

세 가지 조건은 모두 동사의 특성이므로 세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단어 부류인 동사와 그렇지 않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다. 서술어로 사용된 단어 가운데 ‘차이는, 자란, 끌었다’는 동사, ‘아무렇게나, 신선하게’는 형용사이다.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말**(용언의 개념)을 용언(用言)이라고 한다. 용언 가운데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동사의 개념)의 부류를 동사(動詞)라고 하고,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형용사의 개념)의 부류를 형용사(形容詞)라고 한다.

▶ 용언의 개념과 종류

[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제에 따라서 연결되는 어미**(동사는 현재 시제 평서형 어미 ‘-는다/는다’가 결합함.)가 다르고, **명령문이나 청유문으로 활용할 때에도 차이**(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없음.)가 있다. ]([ ]: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적, 문법적 구분 기준. **동사와 형용사의 어미 결합 유무를 바탕으로 품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가다, 먹다, 뛰다’ 등은 동사에 속하고, ‘예쁘다, 고요하다, 향기롭다’ 등은 형용사에 속한다.

▶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

[용언의 갈래]

- 의미에 따라: 동사, 형용사
- 문장 안의 쓰임에 따라: 본용언, 보조용언
- 활용의 규칙성에 따라: 규칙 용언, 불규칙 용언

① 동사

[다가서기]

다음 시에 쓰인 동사 가운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찾아보자.

황소들이 끄끄대며 책이 **실린**(피동사) 수레를 / 화형장으로 끌고 왔을 때, 가장 뛰어난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 **추방된**(피동사) 어떤 시인이 분서 목록을 들여다보다가 / 자기의 책들이 **누락된**(피동사) 것을 알고 / 깜짝 놀랐다. 그는 화가 나서 나는 듯이

- 베르톨트 브레히트, 「분서」

- 움직임을 주어하고만 관련되는 동사(자동사): 끄끄대다, 실리다, 오다, 추방되다, 누락되다, 놀라다,나다, 날다
- 움직임을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도 관련되는 동사(타동사): 끌다, 들여다보다, 알다

동사는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먼저 ‘뛰다, 걷다, 가다, 놀다, 끄끄대다’처럼 움직임을 그 주어에만 관련되는(자동사의 개념) 자동사와 ‘끌다, 누르다, 건지다, 태우다’처럼 움직임을 다른 대상, 즉 목적어에 미치는(타동사의 개념) 타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 ]: 동사의 분류 ①) [ 그리고 ‘먹다, 앓다’처럼 어떤 동작을 자기 스스로 행하는 주동사와 ‘먹이다, 앓히다’처럼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사(어근에 사동 접사가 결합되어 파생됨. 사동사는 타동사에 속함. 동사를 기준에 따라 자동사, 타동사, 주동사, 사동사와 같이 분류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로 분류할 수도 있다. ]([ ]: 동사의 분류 ②) [ 또 ‘잡다, 밀다’처럼 움직임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능동사와 ‘잡히다, 밀리다’처럼 움직임을 남의 동작이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피동사(어근에 피동 접사가 결합되어 파생됨. 피동사는 자동사에 속함.)로 분류할 수도 있다. ]([ ]: 동사의 분류 ③)

자동사	뛰다, 걷다, 가다, 놀다, 끄끄대다
타동사	끌다, 누르다, 건지다, 태우다 → 목적어를 필요로 함.
주동사	먹다, 앓다
사동사	먹이다, 앓히다 → 사동 접사 ‘-이-’, ‘-히-’와 결합함.
능동사	잡다, 밀다
피동사	잡히다, 밀리다 → 피동 접사 ‘-히-’, ‘-리-’와 결합함.

② 형용사

[다가서기]

다음 문장에서 [ ] 속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를 모두 적어 보자.

우리 교실 분위기는 [어떻다(지시 형용사)].

어둡다, 침침하다, 음침하다, 흰하다, 깨끗하다, 밝다 등 - 성상 형용사

[ 형용사에는 ‘고요하다, 달다, 예쁘다, 향기롭다’처럼 성질이나 상태(성(질) +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와,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처럼 지시성을 나타내는(지시 형용사의 개념) 지시 형용사가 있다. ]([ ]: 형용사의 하위 분류. 일반적으로 지시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에 앞서 배열됨. ㉠ 저렇게 예쁜 영희)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하여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지시 형용사가 성상 형용사를 대신하여 쓰일 수도 있다.(지시 형용사의 쓰임.)

-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하다**(성상 형용사). 나도 **그렇다**(지시 형용사).

▶ 형용사의 종류와 각각의 개념

③ 용언의 활용

[다가서기]

다음 대화가 성립되도록 밑줄 친 부분의 형태를 다양한 활용형으로 바꾸어 보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손자: 할아버지, 저희 잘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그래, 주말인데 고생 많다.

- (1) ‘많다’가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어간)**을 확인해 보자.

‘많다’는 ‘많았다, 많구나, 많았군’ 등으로 다양하게 형태가 바뀔 수 있다. 여기서 형태가 고정된 부분은 ‘많-’이다.

- (2) **형태가 변하는 부분(어미)** 가운데 **항상 단어 끝에만 오는 형태소(어말 어미)**와 **단어 끝에 올 수 없는 형태소(선어말 어미)**를 구별해 보자.

‘많았다’의 경우에 **항상 단어의 끝에만 오는 형태소**는 ‘-다’이며 **단어 끝에 올 수 없는 형태소**는 ‘-았-/-었-’이다.

용언은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용언의 활용 -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미의 변화를 활용이라고 함.) 이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을 어간(語幹)이라 하고, 어간 뒤에 결합하는 다양한 형태들을 어미(語尾)라고 한다**.(용언을 활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에 실질 형태소는 어간이고 형식 형태소는 어미이다.) 예를 들어, ‘많네, 많았어, 많았겠군’에서 ‘많-’이 어간이고, ‘-네, -았-, -어, -겠-, -군’이 어미이다. 이처럼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것(활용의 개념)**을 활용(活用)이라 한다.

▶ 어간과 어미의 개념

많았겠군			
많-	<u>-았-</u> (과거)	<u>-겠-</u> (추측)	-군
어간	어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어미의 구분 기준)**에 따라 **어말 어미(語末語尾)**와 **선어말 어미(先語末語尾)(어미의 구분)**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단어의 끝자리(어말 어미의 위치)에 들어가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의 앞자리에 들어간다**.(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에 앞선다는 의미임.) [ 용언이 활용할 때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선어말 어미는 때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의 선어말 어미가 올 수도 있다. ] ([ :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의 특징. **용언의 어미를 다시 세분화하여 각 어미의 기능을 묻거나 분류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위치에 따른 어미의 분류

어말 어미는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終結語尾), 연결 어미(連結語尾), 전성 어미(轉成語尾)(어말 어미의 분류)**로 나뉜다.

- ㉠ 한국의 가을 하늘은 맑{다, 구나, 니?}(종결 어미 -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 ㉡ 바람이 불{면, 어서}(연결 어미 - 종속적) 우리는 연을 날렸다.
- ㉢ 나는 네가 최선을 다하는(전성 어미 - 관형사형) 사람이 되기(전성 어미 - 명사형)를 바란다.
- ㉣ 우리의 청춘이 아름답게(전성 어미 - 부사형) 피었다.

▶ 기능에 따른 어말 어미의 분류

종결 어미는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종결 어미의 기능)**을 하는 어미인데, ㉠에 쓰인 ‘-다’(평서형), ‘-구나’(감탄형), ‘-니’(의문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결 어미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연결 어미의 기능)**을







2023  
고2 연애  
지학사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2(2)(1) 단어의 품사와 특성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품사의 뜻

성질이 공통된 [단어]들끼리 모아 [갈래]를 지은 것

2. 품사의 분류

① 형태에 따른 분류

불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가변어	형태가 변하는 단어	용언, 서술격 조사

② 기능에 따른 분류

체언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로 쓰임.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임.	동사, 형용사
수식언	문장에서 주로 다른 성분을 수식함.	관형사, 부사
관계언	여러 성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줌.	조사
독립언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임.	감탄사

③ 의미에 따른 분류 - 9품사

명사	대상의 이름을 나타냄.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쓰임.
수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냄.
동사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냄.
형용사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관형사	주로 체언을 수식함.
부사	주로 용언, 관형사, 다른 부사 등을 수식함.
조사	주로 체언에 붙어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냄.
감탄사	말하는 사람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냄.

3. 체언

-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임.
- [조사]와 결합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형태의 변화가 없음. → 불변어
-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 [복수형]을 취할 수 있음. (단, [수사]는 [복수형]을 취할 수 없음.)

4. 체언 ① - 명사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분류 기준	종류	정의
사용 범위	보통 명사	명사 중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이름
	고유 명사	명사 중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 인명, 지역명, 상호 등
자립성	자립 명사	혼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의존 명사	앞에 관형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

5. 의존 명사

- 의존 명사는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지만 [자립 형태소인 명사]로 분류함.
- 근거
    - [관형어]의 수식이 가능함.
    - [조사]와 결합이 가능함.
  - 의존 명사의 예: 따름, 줄, 채, 만큼, 듯, 지, 나, 위, 턱, 뿐, 터, 때문, 마련, 셈, 만, 뻔, 척, 자루, 명, 마리 등

TEST 1단계

1. 품사의 뜻

성질이 공통된 어들끼리 모아 래를 지은 것

2. 품사의 분류

① 형태에 따른 분류

불 <input type="checkbox"/> 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input type="checkbox"/> 언, <input type="checkbox"/> 식언, 독 <input type="checkbox"/> 언, <input type="checkbox"/> 계언
가 <input type="checkbox"/> 어	형태가 변하는 단어	<input type="checkbox"/> 언, 서 <input type="checkbox"/> 격 <input type="checkbox"/> 사

② 기능에 따른 분류

체언	문장에서 주로 <input type="checkbox"/> 어나 <input type="checkbox"/> 적으로 쓰임.	<input type="checkbox"/> 사, 대 <input type="checkbox"/> 사, <input type="checkbox"/> 사
용언	문장에서 주로 서 <input type="checkbox"/> 어로 쓰임.	<input type="checkbox"/> 사, 형 <input type="checkbox"/> 사
수식언	문장에서 주로 다른 성분을 <input type="checkbox"/> 식함.	<input type="checkbox"/> 형사, <input type="checkbox"/> 사
관계언	여러 성분 사이의 <input type="checkbox"/> 계를 나타내 줌.	<input type="checkbox"/> 사
독립언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임.	감 <input type="checkbox"/> 사

③ 의미에 따른 분류 - 9품사

<input type="checkbox"/> 사	대상의 이름을 나타냄.
대 <input type="checkbox"/> 사	명사를 대신하여 쓰임.
<input type="checkbox"/> 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냄.
<input type="checkbox"/> 사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냄.
형 <input type="checkbox"/> 사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input type="checkbox"/> 형사	주로 체언을 수식함.
<input type="checkbox"/> 사	주로 용언, 관형사, 다른 부사 등을 수식함.
<input type="checkbox"/> 사	주로 체언에 붙어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냄.
감 <input type="checkbox"/> 사	말하는 사람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냄.

3. 체언

- 문장에서 어, 적어, 어 등으로 쓰임.
- 사와 결합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형태의 변화가 음. → 불어
- 형어의 수식을 받음.
- 복형을 취할 수 있음.(단, 사는 복형을 취할 수 없음.)

4. 체언 ① - 명사

구체적인 대 <input type="checkbox"/> 의 <input type="checkbox"/> 름을 나타내는 단어		
분류 기준	종류	정의
사용 범위	<input type="checkbox"/> 통 <input type="checkbox"/> 사	명사 중 어떤 <input type="checkbox"/> 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 <input type="checkbox"/> 쓰이는 이름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사	명사 중 <input type="checkbox"/> 정한 <input type="checkbox"/> 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input type="checkbox"/> 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 인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역 <input type="checkbox"/> , 상 <input type="checkbox"/> 등
자립성	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	<input type="checkbox"/> 자서 자 <input type="checkbox"/> 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input type="checkbox"/> 존 <input type="checkbox"/> 사	앞에 <input type="checkbox"/> 형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

5. 의존 명사

- 의존 명사는 자립적으로 쓰일 수 지만 자형 소인 사로 분류함.
- 근거
    - 형어의 수식이 가능함.
    - 사와 결합이 가능함.
  - 의존 명사의 ㉠: 따름, 줄, 채, 만큼, 듯, 지, 나위, 턱, 뿐, 터, 때문, 마련, 셈, 만, 뻔, 척, 자루, 명, 마리 등

TEST 3단계

1. 품사의 뜻

성질이 공통된 \_\_\_들끼리 모아 \_\_\_를 지은 것

2. 품사의 분류

① 형태에 따른 분류

___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___, ___, ___ ___, ___
___	형태가 변하는 단어	___, ___ ___

② 기능에 따른 분류

체언	문장에서 주로 ___나 ___로 쓰임.	___, ___ ___, ___
용언	문장에서 주로 ___로 쓰임.	___, ___ ___
수식언	문장에서 주로 다른 성분을 ___함.	___, ___ ___
관계언	여러 성분 사이의 ___를 나타내 줌.	___
독립언	문장에서 ___적으로 쓰임.	___

③ 의미에 따른 분류 - 9품사

___	대상의 이름을 나타냄.
___	명사를 대신하여 쓰임.
___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냄.
___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냄.
___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___	주로 체언을 수식함.
___	주로 용언, 관형사, 다른 부사 등을 수식함.
___	주로 체언에 붙어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냄.
___	말하는 사람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냄.

3. 체언

- 문장에서 \_\_\_, \_\_\_, \_\_\_ 등으로 쓰임.  
 - \_\_\_와 결합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형태의 변화가 \_\_\_음. → \_\_\_  
 - \_\_\_의 수식을 받음.  
 - \_\_\_을 취할 수 있음.(단, \_\_\_는 \_\_\_을 취할 수 없음.)

4. 체언 ① - 명사

구체적인 ___의 ___을 나타내는 단어		
분류 기준	종류	정의
사용 범위	___	명사 중 어떤 ___을 지닌 대상들에 ___쓰이는 이름
	___	명사 중 ___한 ___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___하기 위해 붙인 이름. ___, ___, ___ 등
자립성	___	___서 ___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___	앞에 ___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

5. 의존 명사

의존 명사는 자립적으로 쓰일 수 \_\_\_지만 \_\_\_인 \_\_\_로 분류함.  
 • 근거  
 - \_\_\_의 수식이 가능함.  
 - \_\_\_와 결합이 가능함.  
 • 의존 명사의 ㉠: 따름, 줄, 채, 만큼, 듯, 지, 나위, 턱, 뿐, 터, 때문, 마련, 셈, 만, 뻔, 척, 자루, 명, 마리 등